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금융권, 신분사기 급증

□ 영국 금융산업 사기방지 기구인 CIFAS는 금년 1/4분기 신분(identity)사기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함.

- CIFAS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0년 1/4분기 중 발각된(Granted) 신분사기는 전년동기대비 44.7% 증가하였고, 발각되지 못한(not granted) 신분사기는 9.1% 감소함으로써 전체 신분사기는 전년동기대비 19.9% 증가하였다고 발표함.
- 신분사기는 피해자의 실제 성명과 주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로서 기존의 신용사기보다 발각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.
- 신분사기가 급증하는 것은 모든 범죄는 점차 지능적인 형태로 변모해 간다는 기존의 범죄 관련 가설과 일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상황임.
- 전자정보의 입수가 용이해지면서 신분사기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신분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고 있음.

* CIFAS(Credit Industry Fraud Avoidance System)는 1988년에 설립된 이후 은행, 신용카드, 보험 등 금융권 전반의 사기방지를 목적으로 회원사(260개사) 간의 사기관련 데이터를 교류하고 있고, Serious Crime Act 2007에 따라 비회원 기관도 CIFAS로부터 사기관련 데이터 획득이 가능함.

□ 2010년 1/4분기 중 전체 금융사기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, 전분기대비로는 증가함으로써 금융사기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임.

- 2010년 1/4분기 중 발각된 금융사기는 59,650건으로서 2009년 4/4분기의 60,481건보다 1.37% 감소하였으나, 2009년 4/4분기보다는 35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보안 강화, 엄중한 법적용,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카드발급 억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.
- 한편, 영국사기방지청(National Fraud Authority)은 금융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7년 130억 파운드에서 2010년 300억 파운드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.

(Financial Times, 4/29)